

권고의 아들 바나바

Barnabas, A Son of Exhortation

사도행전 4:36-3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4월 21일 설교

³⁶요셉은 사도들에게 바나바라 불렀는데 번역하면 권고의 아들이다.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 사람인데 ³⁷땅이 있어서 팔고 값을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위대한 인물 바나바

바나바 잘 아시지요? 구약성경에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 사람으로 보통 요셉과 요나단 두 사람을 꼽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빼고는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살피면서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훌륭한 건 알겠는데 산이 너무 높습니다. 벼어마운틴 정도 되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도 올라가 즐기겠지만 에베레스트 정도 되면 멀리서 보기만 하지 올라갈 엄두나 나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바나바를 살필 거니까 뒷집 지고 구경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쉬지 않고 오르면 결국은 꼭대기에 오른다 하는 옛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에베레스트라고 꼭 꼭대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요. 오를 수 있는 만큼만 오르면 됩니다. 바나바처럼 백 퍼센트 본받기 어려운 위대한 사람도 일단 발을 디더 보면 우리가 배울 만한 작은 봉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배우면 됩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사실 생각지도 못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정복은 왜 못 하겠습니까?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쓰던 아람어인데 직접적인 뜻은 '예언의 아들'입니다만 사도들은 예언 말씀 가운데 권고의 말씀을 생각하고 '권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잘 권고한다는 뜻이겠지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 이름이 얼마나 좋았는지 분명 요셉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바나바로만 나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터키 남쪽, 시리아 레바논 서쪽, 이집트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가까운 대륙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키프로스 섬의 정치와 문화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스,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 이런 문화가 스쳐가듯 흔적을 남겼고 바나바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 문화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도 섬 곳곳에 많이 살아서 그 시대의 키프로스는 문화 백화점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곳 출신이다 보니 바나바는 말도 그리스말과 히브리말을 다 할 줄 알았고 다양한 문화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 다 드린 뜻

바나바의 생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주께 다 바친 삶이라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사람들이 천국 비슷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 물건도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누가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부럽지만 믿음이 없으니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따라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냥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등록비가 참 엄청났던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재산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가족이든 주님께 바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도 재산만 바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바친 건 다 바쳤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해 사랑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행 11:24). “착한 사람”은 성품이 좋다는 말입니다. 사람 참 좋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그런 말이지요. 이런 인격은 바나바를 가득 채우고 있던 두 가지 곧 믿음과 성령에서 나왔습

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게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행 6:5).

속에 있는 그게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에 가득하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온통 채우고 계시니 밖으로 나올 게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기쁨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는 것이요 자비는 친절함이요, 양선이라는 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할 때의 그 착하다는 말과 통합니다. 충성은 신실한 것이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만 밖으로 나오니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밖에도. 그래서 집사의 자격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행 6:3).

증인 바나바

바나바를 보고 다시 확인합니다. 뭘 하기 전에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Doing 전에 Being입니다. 재산 바친 것 잘 했지요. 나중에 평생을 주께 바쳐 일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된 다음 그 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뜻이 있습니다. 재산 다 바쳐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사랑이 아니면 헛일이라 했습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은 바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은 칭찬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바나바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재산을 팔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 바나바 안에 계시는 성령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착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듣게 하셨습니다. 행실을 착하게 가져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주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나바의 첫 모습을 통해 그걸 확인합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믿음의 인격은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에도 들어 있습니다. 권고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바나바가 권고를 잘 해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바나바가 권고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고라는 말의 원문은 위로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 부를 때 보혜사도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를 먼저 권고하시고 그렇게 권고를 받은 바나바도 다른 사람을 권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권고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셨다는 증거요,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뻑뻑하게 둘러싼 구름 가운데 한 점이 되었습니다.

용서하면 받아줌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은 바나바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되니까, 하는 건 저절로 따라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오래 박해하다가 주 예수를 만나고는 하루아침에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우선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삼 년 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환영이 다 뭘니까? 슬금슬금 피합니다. 겁이 났겠지요. 스테반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당국에 넘겨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나도 예수 믿소” 하는데 정말로 믿는 건지 아니면 모조리 잡아가려고 속임수를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정말로 믿게 되었다 해도 동료 신앙인을 많이 잡아간 사람이니 뭐가 예쁘다고 여서 오시오 하겠습니까?

그 때 앞장을 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하루 일곱 번 잘못된 뒤에도 와서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 확인하시고 다시금 일꾼으로 써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잃은 양 하나를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 한 사람 환영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좀 받아주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행 9:27).

좀 뒤집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사도들이 먼저 사울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아주라 부탁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도도 아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수고한 덕에 사도들도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었고 그래서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도 하고 주 예수의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로 불러줌

얼마 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였습니다. 말이 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은 더럽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된다 한 유대인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뜻이 뭘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을 그대로 알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는 교인들을 가르칠 사람으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안성맞춤’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데다가 주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키프로스에서 이 중언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주님께 다 드린 사람답게 교회의 부름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께 꼭 붙어 있으라 권고했는데 “권고의 아들”답게 잘 했습니다. 안디옥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별명을 미리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득이나 교회가 큰데 바나바가 온 뒤로 교인이 더 늘었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 같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하나 구했는데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나바 덕분에 교회의 인정도 받고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도 전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자꾸 생기자 교회 지도자들이 일단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뒤로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더니 이제는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길을 터 준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니까?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다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여러 통의 편지로 적어 신약성경을 반 이상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안 했어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만 바나바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만 했더니 나도 나름대로 많이 충성했지만 나 못지않게 충성할 또 다른 일꾼을 발탁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아픔을 안기고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바나바도 흠이 없지 않았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중간 중간에 오를 만한 봉우리도 있는 법이지요. 바나바도 인간 아닙니까? 구약의 요셉이나 요나단도 성경에 안 적어도 그렇지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바나바의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잘못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 신자들 마음에 상처를 준 일입니다. 위선의 죄를 지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 2:11-13).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인 교회니까 그 자리에는 이방인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절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혹시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게 문제가 될지 모른다 싶어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함께 밥을 먹던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우르르 같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겠지요. 지금까지 핏줄 안 따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둘로 갈라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 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지금까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던 걸 갈라놓으니 이걸 말 그대로 찢어지는 아픔이지요. 이방인 신자들 마음을 찢어놓았으니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고넬로 집안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실히 놓고서도 한 순간 판단착오로 옛 버릇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을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할 때 바나바도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큼니다. 바나바가 누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던 지도자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지어서는 안 될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잠시 헛갈렸다는 핑계는 안 통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바나바는 안 그래야지요. 유대인이 전부 도망을 간다 해도 바나바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장점이 문제가 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의 두 번째 문제는 바울과 싸운 일입니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나도 납처럼 외면했다라면, 또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필요했을 때도 사울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썼더라면, 사울은 역사의 전면에서 나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싸움도 없었겠지요. 사울을 환영도 해 주고 사울에게 일도 맡겨주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사울을 데리고 가 눈도장을 부지런히 찍게 해 준 게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지금 사울하고 한판 싸움을 하고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허무하지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습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중도 이탈한 마가요한을 두 번째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 했고 바울은 안 된다 했는데 둘 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갈라서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 잘못이 더 큼니다. 저는 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 못 한다 했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잘못이 크다고 해서 바나바가 더 잘한 건 아닙니다. 바나바도 진리와 상관없는 일로 싸움까지 했으니 분명한 잘못입니다.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건 바나바의 장점 가운데서도 장점입니다. 달리 권고의 아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울을 살려 바울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한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연장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다라면 참 좋았겠는데 끝까지 안 된다 합니다. 아쉽지요.

하지만 바울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을 맡았으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싫다고 관둬 버리면 선교사업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첫 번째 선교 때 당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교에서 또 중도이탈을 한다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안 된다 했을 때 바나바도 그 점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선교사업을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용서한다고 당장 일을 맡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옳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용서하는 게 내 특기지만 그걸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뿐 아니라 나도 끝까지 내 생각만 우겨 결국 싸움이 되고 말았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점이라 실수가 뼈아프다

바나바가 잘못을 두 번 저질렀는데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권고의 아들이라 그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장점이 아니었다면 이런 잘못도 안 저질렀을 겁니다. 장점이 아니었다면 혹 잘못을 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점이 아닌 장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내가 평소에 잘 하던 일을 꼭 한 번 제대로 못한 잘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리한 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이방인 신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분명히 알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일을 잘 하도록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베드로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비록 한 순간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방인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 해온 수고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요? 상처는 위로보다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많은 위로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게 바나바의 장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점인 만큼, 권고를 많이 한 만큼, 상처도 크니까요.

전에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을 많이 한 대학교수 한 분이 신문에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서 “절름발이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수지요. 그 글을 읽은 장애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교수님만은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말았어야지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은 걸요. 그 분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게 그분의 장점이었기에 실수가 남긴 상처도 그만큼 더 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리설 줄도 알아야

바나바의 두 번째 잘못은 내 장점을 지나치게 밀어붙인 잘못입니다. 장점이라도, 아무리 좋은 점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농축해 놓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라도, 그게 나 하나의 생각이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재고해야 합니다.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야지요. 그렇지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용서하는 것하고 당장 일을

말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용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을 책임 있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 질서와 연합을 이루면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나만 옳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무시하면 둘 다 틀렸습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는 이 좋은 일, 요셉이 바나바가 되게 하고 사울을 바울로 만든 이 귀한 점이, 바나바의 생애 마지막을 낫 뜨거운 싸움으로 끝나게 만들고 바나바를 역사의 뒤편길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장점이 없었더라면 싸움도 안 했겠지요. 그렇다고 장점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장점일수록 조심하고, 그 장점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라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다른 교인들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참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라도 그게 나를 내세우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 됨을 깨뜨리게 만든다면 그건 화평이 아니니까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바나바에게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에서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나바와 우리

장점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장점일수록 조심하자. 이런 교훈을 얻고 나니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어야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 드시지요? 바나바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장점이라는 게 하도 엄청나 그렇지요. 하지만 태산 곁에는 작은 봉우리도 많다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장점 있습니다. 많습디다. 본인이 생각하는 점 있지요? 남편이나 아내도 인정하는 장점, 때로는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도 알아주는 장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 하지만 본인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장점에서 실패하면 상처도 큼디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는 한결같은 열매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장점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걸로 내 고집이 드러난다면 그건 장점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 주시는 열매는 마지막 절제의 열매겠지요.

장점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속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 인격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나바한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권고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산이 하도 높아 안 될 것 같지만 작은 봉우리를 하나씩 정복해 가다 보면 어느 새 중턱이고 나중에는 꼭대기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함의 꼭대기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거기 다함께 올라가겠지요. 주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봉우리입니다.

바나바는 증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떼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앞에 계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는 일입니다. 우리 속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 우리 생각과 말과 사람됨을 거룩하게 바꾸어가고 그 변화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함께 노력합시다. 이런저런 장점으로 나타나겠지요. 끝까지 잘 하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장점이 끝까지 장점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만듭시다. (권수경 목사)